



한국이 29일 문학경기장에서 벌어진 2014인천아시아게임 축구 여자 준결승 북한에서 점진 끝에 1-2로 패했다. 한국 스트라이커 지소연(10번)이 북한 수비수 김운주를 따돌리고 문전으로 쇄도하고 있다. 인천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in

투혼의 여자축구, 졌지만 잘 싸웠다

북한에 1-2 역전패...결승행 좌절

정설빈 선제골...지소연 아쉬운 골대 강타 후반 인저리타임 수비 실수로 역전골 허용 내일 베트남과 3·4위전...동메달 건 한판

여자축구대표팀이 2014인천아시아게임에서 3·4위전을 펼치게 됐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9일 문학경기장에서 남북대결로 벌어진 대회 준결승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전반 12분 정설빈(현대제철)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36분과 후반 추가시간에 리에경과 허은별에게 내리 실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부터 차이가 컸던 힘든 승부였다.

김광민 감독의 북한은 11위, 한국은 18위다. 결국 한국은 북한과의 역대전적에선 1승1무13패, 아시아게임에선 5전패로 더욱 밀리게 됐다. 한국은 같은 날 일본(FIFA 랭킹 3위)에 0-3으로 패한 베트남(33위)과 10월 1일 오후 5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동메달을 다툰다. 북한은 10월 1일 오후 8시 문학경기장에서 일본과 맞붙는다.

●'역습'의 한국 vs '스피드'의 북한
잘 싸웠다. 희망도 보여줬다. 지소연(첼시)-유영아(현대제철)를 투입으로 내세운 한국은 권하늘(상무)-심서연(고양대교)을 중심으로 정설빈-전가을(현대제철)을 좌우에 배치한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전략은 분명했다. 단단한 수비와 효율적 역습. 반면 북

한은 그간 구사한 4-4-2가 아니라, 리에경-김윤미-라온심을 스리톱으로 세우 공격에 무게를 실었다. 정설빈의 오른발 프리킥이 골망을 흔들며 리드를 잡은 한국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북한은 전반 36분 리에경의 동점골로 응수했다. 후반 들어 한국은 지소연을 중심으로 내리며 승부수를 띄웠다. 북한도 '특급' 허은별을 투입했다. 분위기는 좋았다. 압박으로 수세를 벗어난 한국은 후반 44분 크로스바를 때린 지소연의 슛과 날카로운 조소현의 슛으로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화를 불렀다. 허은별이 수비진의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우정도, 승부도 빛났다!
남북대결 자체가 화제였다. 경기장 취재

석은 일찍감지 만원이었고, 양측 골문 뒤편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사진기자들의 숫자도 엇비슷했다. 서로에게 장풍을 겨는 미묘한 입장이었지만, 남북 사령탑들도 화기애애했다. 현역 시절부터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윤 감독과 김 감독은 벤치에서 방정함으로 제자들을 지휘했지만, 공식 기자회견과 경기 전후로 서로 마주했을 때는 담소와 웃음을 나누는 등 평소의 딱딱함을 벗어 던졌다. 경기 후에는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며 격려했다. 7500여 관중이 펼친 응원전도 대단했다. "대~한민국"의 우렁찬 외침 속에 "우리는~하나다"를 후렴구로 넣으며 치열한 협투를 펼친 남북 남자들을 함께 격려했다. 인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29일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다이빙 남자 싱크로나이즈 10m 플랫폼 결승에서 은메달을 딴 우하람(왼쪽)과 김영남이 시상대에 올라 환하게 웃고 있다. 인천 | 뉴스사

29일 인천AG 경기종합

한국 다이빙 '값진 은메달'

김영남-우하람, 男 싱크로나이즈 사상 첫 2위 남자탁구 단체전 銀 확보...레슬링 銅 4개 획득

다이빙에서 값진 은메달이 나왔다. 김영남(인천체고)과 우하람(부산체고)은 29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게임 다이빙 남자 싱크로나이즈 10m 플랫폼에서 함께 403.50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02년부터 아시아게임에 등장한 이 종목에서 2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던 한국은 역대 처음으로 2위 입상의 기쁨을 맛봤다.

남자탁구대표팀은 단체전 은메달을 확보했다. 주세혁, 정상은(이상 삼성생명), 이정우(울산탁구협회)로 구성된 대표팀은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대만과의 준결승에서 3-1로 이겨 30일 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과 맞붙게 됐다. 아시아게임 8회 연속 남자탁구 단체전 결승 진출에 성공한 한국이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1990년 베이징대회가 마지막이다. 혼합복식과 여자 복식 2개조는 나란히 32강전을 통과했다. 혼합복식 김민석(KGC)-전지희(포스코에너지)는 라세드 사나드-마람 알카시미(바레인)를 세트스코어 3-0(11-4 13-11 11-3)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여자복식 박영숙(한국마사회)-양하은(IB스포츠)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이은희(단양군청)도 각각 마카오팀과 네덜팀을 3-0으로 따돌리고 16강에 합류했다.

레슬링 남자 자유형 61kg급 이승철(국군체육부대), 74kg급 이상규(부천시청), 86kg급 김관욱(광주남구청), 125kg급 남경진(포항시체육회)은 모두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배구대표팀은 송림체육관에서 벌어진 이란전에서 1-3으로 패했다. 8강 토너먼트 상대는 태국이다. 한국은 태국을 따돌리면 일본과 준결승을 치른다.

메달 획득이 기대됐던 육상 여자 멀리뛰기 정순옥(인천시청)은 4위에 머물렀고, 사이클대표팀 구성은(대구체육회)과 나야름(삼양사)은 여자 개인도로에서 각각 6위와 8위에 그쳤다. 소프트볼대표팀은 송도LNG야구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풀리드 4차전에서 0-8로 완패해 예선전적 1승3패로 탈락 위기에 처했다.

인천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클릭! 인천 | 30일 주요경기 일정

한국 태권도 '금빛 발차기' 개시 레슬링 정지현, 광저우 한 풀까

이제 '금빛 발차기' 차례다. 한국의 메달발인 태권도가 30일부터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시작된다. 2014인천아시아게임에선 남녀 8체급씩, 총 16체급이 펼쳐지지만 국가별로 남녀 6체급씩, 최대 12체급에 출전할 수 있다. 태권도 첫날 남자 74kg급 송영진(청주공고)과 87kg급 신영래(삼성에스원), 여자 49kg급 박선아(경희대)와 53kg급 윤정연(한체대) 등 4명이 한국의 금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탠다. 윤정연은 올해 아시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이미 2개의 금메달을 수확한 불링은 오전 9시부터 안양호계체육관에서 열리는 남녀 5인조 경기에서 금메달 추가를 노린다. 레슬링에선 2004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정지현(울산남구청)이 남자 그레코로만형 71kg급에 출격해 영광 재현에 도전한다.

탁구에선 남북대결이 펼쳐진다. '전략종목'으로 선택된 혼합복식의 이정우(울산시)-양하은(대한항공)이 오전 10시 북한 김혁봉-김정희와 16강전을 치른다. 김혁봉-김정희는 지난해 파리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이 종목 최강이다. 대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구기 종목의 4강전도 연이어 펼쳐진다. 남자축구는 오후 8시부터 문학경기장에서 태국과 결승 진출을 다투고, 남자하키키도 오후 4시30분부터 선학경기장에서 인도와 준결승을 치른다. 여자배구는 오후 7시30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결승 티켓을 놓고 일본과 격돌한다. 인천 | 김도현 기자

※ 연재카툰 <돌직구>는 지면 사정으로 11면으로 옮겨 게재합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tj2357

링 위에서 딸 이름 못 불러 미안했던 한순철

복싱 남자 라이트급 8강전서 0-3 판정패 눈에 피멍 든 얼굴...딸 도이 양도 울먹여 숲 약속 못 지킨 아빠에게 "사랑해" 위로

2012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한순철(30·서울시청)은 29일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게임 복싱 남자 라이트급(60kg) 8강전에서 무스타파 알카스베흐(20·요르단)에게 0-3으로 판정패를 당했다. 왼손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손가락 부상은 핑계일 뿐"이라며 깨끗하게 결과를 인정했다.

눈 주위에 피멍이 든 얼굴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딸 도이(3)였다. 도이는

이날 관중석에서 아빠의 경기를 지켜봤다. 한순철의 부인 임연아(24) 씨는 "승패가 나오기 직전 도이가 울먹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마침 도이가 응원을 펼친 자리는 요르단선수단의 응원석 바로 옆이었다. 알카스베흐가 아빠의 안면을 가격할 때마다 요르단선수단의 함성은 더 커졌다. 그럴 때마다 도이는 홀로 고함을 치며 아빠에게 성원을 보냈다. 경기를 마친 한순철은 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패배의 고통을 달랬다. 그러나 딸과의 만남도 잠시뿐, 한순철은 곧장 선수촌으로 이동했다. 도이는 엄마의 휴대전화로 아빠와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오늘 왜 내 이름(링 위에서) 안 불러요." 미안한 마음의 한순철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런던올림픽 당시에도 '꼭 금메달을 따고 링 위에서 딸의 이름을 외치겠다'고 다짐했던 그였다. "도이야, 아빠가 집에 가서 자전거 사줄게." 태릉선수촌 생활 때문에 한동안 떨어져있던 부녀의 안타까운 통話は 이렇게 끝이 났다.

한순철에게 딸은 고된 훈련 속에서 활력소와 같은 존재였다. 비록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딸에게 메달을 걸어주려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도이는 "아빠 사랑해"를 외쳤다.

인천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한순철이 29일 복싱 남자 라이트급 8강전을 끝낸 뒤 딸 도이 양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한순철은 왼손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렵게 판정으로 패했다. 인천 | 전영희 기자

조현아·윤유리 "카바디의 매력에 푹 빠졌죠"

운동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 알바까지 비인기종목 설움에도 '우리는 국가대표'

2014인천아시아게임이 열리는 29일 인천 송도글로벌대학교체육관. 경기장에선 이색 스포츠 경기가 장내 아나운서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진행됐다. 방글라데시와 한국여자대표팀이 맞붙은 카바디라는 종목이다. 카바디는 '숨을 참는다'는 의미로 인도의 전통투기, 술래잡기와 피구 그리고 격투기를 혼합한 스포츠라고 보면 된다. 레이더라고 불리는 공격수가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 상대 선수를 터치

하거나 라인을 찍고 돌아오면 1점을 얻는다. 남자부는 1990베이징아시아게임, 여자부는 2010광저우아시아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대표팀은 아시아게임에서 아직 메달 구경을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열린 인천아시아무도경기대회에서 가능성을 엿봤다. 남녀대표팀 모두 동메달을 따내며 결승 진출을 목표로 삼았다. 남자부는 28일 일본을 꺾고 순항을 시작한 반면 여자는 이날 경기에서 방글라데시에 18-30으로 졌다. 중국인 인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지만 실력 차이가 있어 사실상 준결승 진출이 어려워



카바디여자대표팀 윤유리(왼쪽)와 조현아 인천 | 박성준 기자

진 상황이다. 광저우대회에 참가한 바 있는 주장 조현아(26·현대건설)는 "우리와 다른 스타일의 방글라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동메달을 따면서 자만했던 것 같다"며 어린선수들을 다독였다. 윤유리(21·동아대)는 "경기에서 저

서 속상하고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였다.

카바디 선수들은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안고 있지만 당당했다. 조현아는 "선수들이 카바디 운동만으로 생활할 수 없어 대표팀 일비가 지급되지 않는 3~4개월은 파트타임을 댄다. 백화점이나 공장일 등 안 해 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0광저우대회 때는 속소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에는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린 선수들과 호흡을 1년 이상 꾸준히 맞췄다"고 소개했다. 윤유리도 "카바디를 알고 경기에 푹 빠졌다.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인천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